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3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2030’ 500만원 급전 대출…소상공인 적금금리 3%p 우대

서울경제 https://zrr.kr/cqZ4V0

국내 금융그룹들이 정부의 포용 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품을 새로 내놓을 예정
시장에서는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를 고려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금융사의 부담이 급증하는 점을 우려

고환율 위험? 기회?…은행 전략 제각각

SBS Biz https://zrr.kr/zmapKq

올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시중은행들이 저마다 다른 외화 위험 관리 기조를 이어온 모습
은행들은 모두 외화를 순보유하는 '롱' 포지션을 공통으로 유지했지만, 포지션을 구성하는 방식과 리스크 허용 수준에서 크게 차이

'생산적 금융' 화답하는 은행권…'기술금융' 새정부 들어 10조 늘었다

뉴스1 https://zrr.kr/SAw7zN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18조 5677억 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307조 9137억 원 대비 4개월 새 10조 6540억 원 늘어난 수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술 중심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영향

외국인 280만 시대…새 고객층 선점 나선 은행권

쿠키뉴스 https://zrr.kr/0Wm5u8

시중은행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외국인 전용 앱 개편부터 언어 지원 확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

길어진 변동장에…CMA 잔액 첫 100조 돌파 눈앞

서울경제 https://zrr.kr/4lGxIs

CMA 잔액은 1일 기준 98조 3970억 원으로 집계… 직전일 대비 32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2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
인공지능(AI) 고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까지 겹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증시에 다시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

"1주 사면 할인 쿠폰"…주주 혜택 서비스, '장투 문화' 만드나

이데일리 https://zrr.kr/3PGk7B

정부가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혜택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상장사 업계에서도 주주 우대 서비스를 도입하며 주주 친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주주 우대 서비스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보험사들, 내년 1월부터 장기보험 보험료 10%대 인상 검토

중앙이코노미뉴스 https://zrr.kr/rh8jRM

최근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월부터 장기보험상품군 중 건강보험 상품 위주로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
손해율이 높은 수술비·진단비·치매간병보험 등이 해당되며, 인상률은 10~12% 수준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논의…“유연한 자산운용·규제정비 해야”

매일경제 https://zrr.kr/yPnTlM

보험업계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 장기 수익성 및 변동성 완화 추구,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의 정비 등을 제안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빅딜, 케이뱅크엔 독 될까

더팩트 https://zrr.kr/07hhrd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품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약 20조원 규모의 '핀테크·웹3 공룡'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와
일각에선 그간 업비트 실명계좌 파트너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온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선 이 빅딜이 호재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가상자산도 적금처럼”…두나무‥코인원, 자동 투자 서비스 경쟁

전자신문 https://zrr.kr/GmbWbX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장기 투자자 확보에 나서
업비트는 서비스 누적 투자액이 4400억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입증했고, 코인원은 유사 서비스 출시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